

# 실로암 한인침례교회

Siloam Korean Baptist Church

November 16, 2025, 10:30 a.m.

오순절 이후 스물세번째 주일 (Year C)

The Twenty-Third Sunday after Pentecost (Year C)



Immanuel Baptist Church

69 Saunders Road, Newport News, VA 23601

담임목사 장선욱 Senior Pastor Sean Chang, 757-867-8676

seanchang78@gmail.com

[www.siloamkbc.org](http://www.siloamkbc.org)

---

## 모임 안내 Gatherings

---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Korean/English) 10:30 am  
수요 성경 공부 Wednesday Bible Study (Korean) 8:00 pm via Zoom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

## 예배 순서 WORSHIP ORDER

---

### I 모이기 Gathering

교회 소식 Life of the Church .....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예배 기도 Invocati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찬양 Let's Praise! .....다같이 All Together

H393 오 신실하신 주 (D) Great Is Thy Faithfulness

C1024 우리 함께 기뻐해 (E) Let Us Rejoice And Be Glad

C1002 송축해 내 영혼 (E) 10,000 Reasons

신앙 고백 Affirmation of Fath .....다같이 All Together

삶을 되돌아보기 Time to Reflect .....다같이 All Together

평화의 나눔 Sharing Peace .....다같이 All Together

중보 기도 Intercessory Prayers .....다같이 All Together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다같이 All Together

### II 말씀 The Word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다같이 All Together

누가복음 Luke 21:5-19

설교 Serm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마지막 때의 징조 The Signs of the End Times

### III 화답 Response

찬양 Let's Praise! .....다같이 All Together

C1290 날 구원하신 주 감사 (G) Thanks to God

헌금 기도 Offering Prayer .....다같이 All Together

### IV 파송 Sending

파송 및 축도 Sending Word and Benedicti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

## 교회 소식 THE LIFE OF THE CHURCH

---

- 수요 성경 공부 매주 수요일 8 시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

## 기도 제목 THE PRAYER LIST

---

- 인도 중부 지역 무슬림 전도자
- 인도 북부 지역 무슬림 침례자
- 콜카타 사람들
- 리더들의 비전과 사역 재조정
- 마르와리 종족
- 인도 남부 지역 무슬림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

## THE FIRST LESSON 이사야 ISAIAH 65:17-25

---

- 17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8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19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20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 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 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이리라  
21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22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23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24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25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

## 이사야서 ISAIAH 12

---

- 1 그 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2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3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  
4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5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6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

## THE SECOND LESSON 데살로니가 후서 2 THESSALONIANS 3:6-13

---

- 6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7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 8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 9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 10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 11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 12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 13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 성경 공부 초점: *선을 행하라*

### 생명의 말씀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초대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금방 (혹은 적어도 자신의 생애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고 신앙 공동체 안의 책임도 포기했습니다. 공동체의 혜택은 누리면서도, 공동체의 일상적 삶에는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곧 모든 것이 끝나고 공황과 웅서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받으실 것이라면 왜 일해야 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1. 미래의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삶과 행동이 달라졌던 경험이 있나요?
2. 교회의 한 구성원이 갖는 책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편지의 저자는 이런 신자들을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6 절, 11 절), “일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11 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너그러움과 자비에 의존했습니다.

3. “일을 만드는 자(busybody)”는 누구를 말하나요?
4.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들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와 대조적으로, 바울의 본이 신실한 자들이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살후 3:7-8) 이는 본이 되게 하려 한 행동이었습니다.

5. 한 사람의 근면함과 헌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고 그들을 이끌 수 있을까요?
6. 본받고 싶은 태도와 행동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게으르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은 엄격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게 행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살후 3:6). 더욱 강한 말도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살후 3:10). 이것은 청지기직의 문제입니다. 공동체는 개인을 돌볼 책임이 있고, 개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를 나태함이나 타인의 필요를 외면하는 삶으로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을 위해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는 헌신과 결단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은혜의 선물—하나님의 값없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호의—은 우리가 용서받는 것을 알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자유방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로 충만한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실천하는 섬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살후 3:13).

7. 어떻게 “선을 행하는 것”을 알 수 있나요?
8. 옳은 일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9. 세월이 지나면서 “선을 행한다”는 것에 대한 당신의 이해와 갈망이 변한 적이 있나요?

## 우리 삶 가운데 말씀

은혜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두 가지 이야기:

이야기 1:

어느 날 한 남자가 죽음을 앞두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거친” 성격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목사가 문병을 왔고 두 사람은 삶과 죽음,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흘러간 세월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목사가 떠나려 할 때,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목사님.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목사님은 수년 동안 우리가 선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설교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여러 해 동안 선한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이야기 2:

어느 날의 평범한 입교(confirm) 교육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부산하고 대화도 활발했습니다. 그날 주제는 “은혜”였습니다. 지도자가 물었습니다.

“은혜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순간, 분주하던 분위기는 조용해지고 말소리도 멎었습니다. 마침내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은혜는... 내가 앞으로 저지를 죄도 용서받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10. 이 이야기들은 은혜에 대한 어떤 이해(혹은 오해)를 보여주나요?
11. 당신은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나요?

우리는 종종 은혜를 왜곡되게 이해하곤 합니다. 데살로니가 신앙 공동체도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믿음으로 인해 일부는 “게으르게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공동체의 일과 책임을 포기한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 없는 은혜, 회개가 없는 은혜—디트리히 본회퍼가 『나를 따르라』(The Cost of Discipleship)에서 “값싼 은혜”라고 부른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은혜는 대가가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나태함으로 부르지 않고, 적극적인 참여로 부릅니다. 은혜는 우리가 은혜로 받은 깊은 선물들을 깨달을 때 섬김의 삶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로 바뀝니다. 은혜는 우리를 게으름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신실한 삶으로 밀어 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살후 3:13)

12.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이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도록 어떤 동기를 주나요?
13.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 우리 삶에서 믿음 실천하기

###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살기

미국 북음주의 루터교회(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ELCA)는 그들의 사명과 목적을 요약하는 표어로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의 손.”

우리는 게으름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로 부름 받았습니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알고 믿으면서,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손이 되도록 부름 받았습니니다.

14.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15.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과 삶을 통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나요?

## 마지막 말씀

나태함에 빠지는 경우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 기도

하나님, 나의 손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게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좋은 목적으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

## THE GOSPEL 누가복음 LUKE 21:5-19

---

- 5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 6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 7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 8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 9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 10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 11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 12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 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 가려니와
- 13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 14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 15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 16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 주어 너희 중의 몇을 죽이게 하겠고
- 17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 18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 19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